

19. 올해의 간지는

이름: ( )학년 ( )반 (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div> <div>十<sup>1</sup>二<sup>2</sup>支<sup>3</sup>者<sup>4</sup>는</div> <div> <div>십</div> <div>이</div> <div>지</div> <div>자</div> </div> </div>	<div> <div>十</div> <div>열</div> </div> <div> <div>二</div> <div>둘</div> </div> <div> <div>支</div> <div>지지</div> </div> <div> <div>者</div> <div>~것</div> </div>
풀이	<div> <div>• ~者: ~(라는) 것</div> <div>▶ 십이지라는 것은(십이지는)</div> </div>	
문장	<div> <div>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也<sub>요</sub>.</div> <div> <div>자</div> <div>축</div> <div>인</div> <div>묘</div> <div>진</div> <div>사</div> <div>오</div> <div>미</div> <div>신</div> <div>유</div> <div>술</div> <div>해</div> <div>야</div> </div> </div>	<div> <div>子</div> <div>첫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丑</div> <div>둘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寅</div> <div>셋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卯</div> <div>넷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辰</div> <div>다섯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巳</div> <div>여섯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午</div> <div>일곱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未</div> <div>여덟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申</div> <div>아홉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酉</div> <div>열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戌</div> <div>열한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亥</div> <div>열두째</div> <div>지지</div> </div> <div> <div>也</div> <div>어조사</div> </div>
풀이	<div> <div>• ~也: ~이다. ~이라</div> <div>▶</div> </div>	
문장	<div> <div>十干者<sub>는</sub></div> <div> <div>십</div> <div>간</div> <div>자</div> </div> </div>	<div> <div>十</div> <div>열</div> </div> <div> <div>干</div> <div>방패</div> </div> <div> <div>者</div> <div>~것</div> </div>
풀이	<div> <div>• ~者: ~(라는) 것</div> <div>▶</div> </div>	



문장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也 <sub>요.</sub>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야	甲 첫째 천간 乙 둘째 천간 丙 셋째 천간 丁 넷째 천간 戊 다섯째 천간 己 여섯째 천간 庚 일곱째 천간 辛 여덟째 천간 壬 아홉째 천간 系 열째 천간 也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也: ~이다. ~이라</li> </ul>	
문장	相合而爲六十甲子 <sub>라.</sub> 상 합 이 위 육 십 갑 자	相 서로 合 합하다 而 말 잇다 爲 되자 六 여섯 十 열 甲 첫째 천간 子 첫째 지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而: ~하여</li> <li>• 爲: 하다, 되다</li> <li>• 六十甲子: 十干과 十二支를 차례로 조합하면 60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六十甲子이며, 자신이 태어난 해의 干支를 60년 만에 맞이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 60세를 回甲이라고 함</li> </ul>	

※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통해 한자문화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支持 지지 • 干支 간지 • 支出 지출 • 支店 지점 • 支給 지급 • 相考 상고 • 相對 상대 • 實相 실상 • 相議 상의 • 首相 수상 •	•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의 사상, 정책 따위에 찬동하여 도와서 힘을 씀. •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 실제의 모양. • 어떤 일을 서로 논의함. •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조정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 • 본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일정한 지역의 일을 맡아보는 점포. • 서로 견주어 고찰함. • 서로 마주 대함.
--	--

〔나〕

甲卒 갑졸 • 甲冑 갑골 • 申請 신청 • 申告 신고 •	•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보고함. • 갑옷을 입은 병사. • 거북의 등딱지와 짐승의 뼈. • 단체나 기관에 어떤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
--	---

【꼭 알아 둥시다】

■ 한자의 쓰임

- ‘者’의 쓰임: ‘~것’, ‘사람’,
  - 學者: 배우는 사람
  - 農者天下之大本也: 농업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 也의 쓰임: ‘이다’
  -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也: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이다.
- 而의 쓰임
  - ‘~해서, ~이고’(순접): 登高山而望四海: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해를 바라본다.
  - ‘~이나, ~지만’(역접): 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봉양하고자하나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는다.



## ■ 나이와 관련된 한자 어휘

• 還甲(환갑), 回甲(회갑): 천간과 지지의 조합인 ‘육십갑자’가 총 60개 이므로, 61번 째 생일은 자신이 태어난 해의 ‘육십갑자’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환갑, 회갑은 만60세를 일컫는 말이다.

### •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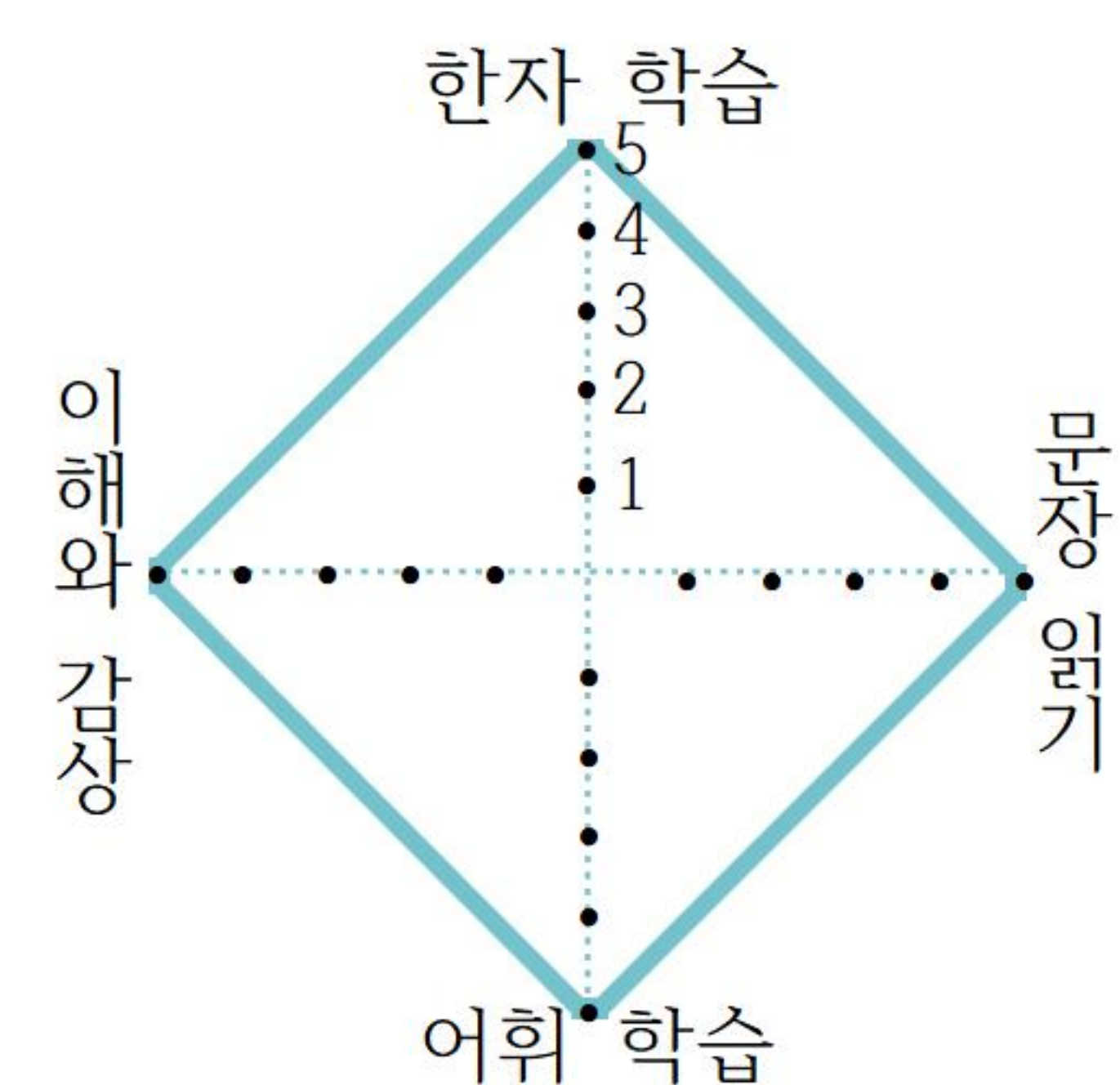
15세	志學	20세	弱冠	30세	而立
40세	不惑	50세	知天命	60세	耳順
61세	還甲	62세	進甲	70세	古稀, 七旬
77세	稀壽	80세	八旬	88세	米壽
90세	卒壽	91세	望百	99세	白壽

## ■ 12지지 관련 이야기

아득한 옛날에, 하느님이 여러 짐승들을 소집하고 '정월 초하루 날 아침 나한테 세배하러 와라. 빨리 오면 1등상을 주고 12등까지는 입상하기로 한다.' 하고 말했다. 소는 달리기 경주에 자신이 없었다. 말이나 개나 호랑이에게는 어림도 없고 돼지, 토끼에게도 이길 가망이 없었다. 그래서 소는 남보다 일찍 출발해야 겠다고 생각하여 남들이 다 잠든 그믐날 밤에 길을 떠났다. 이때 덩치 큰 동물들 사이에 끼어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하던 쥐 역시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 열심히 운동하는 동물의 덕을 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눈치 빠른 쥐가 소의 출발을 보고 잼싸게 소등에 올라탔다. 드디어 소는 동이 틀 무렵에 하느님 궁전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쥐가 재빠르게 한발 앞으로 뛰어 내려 소보다 먼저 문안에 들어와서 소를 제치고 1등이 되었다. 천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호랑이는 3등이 되었고 달리기에 자신이 있는 토끼는 도중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4등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용, 뱀,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차례로 하늘 문에 들어서 입상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12가지의 띠가 생겼다고 한다.

이 날 달리기 경주에서 고양이도 나갈 예정이었는데, 고양이가 워낙 잠이 많아서 쥐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쥐는 고양이는 경쟁상대에서 제외하기 위해 깨우지 않고 소 등에 타고 먼저 가버렸고 이후 고양이는 쥐를 보면 잡으려고 한다고 전한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 20. 우리 명절은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 【본문 학습】

문장	元 <sup>1</sup> 日 <sup>2</sup> 逢 <sup>4</sup> 親舊 <sup>1</sup> 年 <sup>2</sup> 少 <sup>3</sup> 하면, 원 일 봉 친 구 연 소	元 으뜸 日 해 逢 만나다 親 친하다 舊 예(오래) 年 해 少 적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年少: 나이가 어린 사람</li> <li>▶ 원일 : 친구나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li> </ul>	
문장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로 이 등 과 진 관 생 남 획 재 등 어	以 써 登 오르다 科 과목 進 나아가다 官 벼슬 生 나다 男 남자 獲 얻다 財 재물 等 무리 語 말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登: 오르다→합격하다</li> <li>科: 과거시험</li> <li>獲財: 돈벌이 재물을 얻다</li> <li>▶</li> </ul>	
문장	爲德談하여以相賀하나라. 위 덕 담 이 상 하	爲 되다 德 덕 談 말씀 以 써 相 서로 賀 하례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德談: 복 받기를 바라는 말</li> <li>以…爲~: …(으)로 ~을 삼다</li> <li>▶</li> </ul>	



문장	秋夕:我國俗節 <sup>에</sup> 上墓以八月十五日 <sup>에</sup> 추 석 아 국 속 절 상 묘 이 팔 월 십 오 일	秋 夕 我 國 俗 節 上 墓 以 八 月 十 五 日 가을 저녁 나라 풍속 마디 노르다 무덤 써 여덟 달 열 다섯 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俗節: 제삿날 외에 철에 따라 조상의 사당이나 무덤에 차례를 지내는 날</li><li>• 上: 위, 오르다</li><li>• 上墓: 묘에 오르다, 즉 성묘하다</li><li>• 以: ~에(시간)</li></ul> <p>▶</p>	
문장	稱秋夕 <sup>이라</sup> . 칭 추 석	稱 秋 夕 일컫다 가을 저녁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稱: 일컫다. 칭하다</li></ul> <p>▶</p>	

※ 명절과 세시풍속을 확인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다.

※ 내가 명절에 한 일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써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幼年 유년 • 來年 내년 • 上京 상경 • 頂上 정상 •	• 산 따위의 맨 꼭대기. 그 이상 더 없는 최고의 상태. • 어린 나이나 때. 또는 어린 아이. • 올해의 바로 다음 해. •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
--	--

〔나〕

比等 비등 • 均等 균등 • 期待 기대 • 待遇 대우 • 英詩 영시 • 祝詩 축시 • 童詩 동시 • 卽時 즉시 • 時價 시가 • 時針 시침 •	• 기세에서, 시를 가리키는 짧은 바늘. •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때. • 여럿이 서로 비슷하게. • 어느 한쪽으로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고르고 가지런함. • 사회적 관계에 따라 적절히 남을 대함. • 영어로 쓰인 시. • 어린이가 지은 시. 또는 어린이를 위한 시. • 거래할 당시의 물건값. • 축하의 뜻을 담은 시. •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림.
--	---

〔다〕

朋友 봉우 • 巨大 거대 • 秀作 수작 • 唯一無二 유일무이 • 親舊 친구 • 昨年 작년 • 感謝 감사 • 名作 명작 • 雄大 웅대 • 溫柔 온유 • 根本 근본 •	• 엄청나게 큼. • 뛰어나게 잘된 작품. •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 •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 • 올해의 바로 앞의 해. • 거래할 당시의 물건값. • 이름이 널리 알려진 훌륭한 작품. • 사물이나 생각 등이 생기는 본바탕. • 오래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
---	--

〔친구에게 격려와 감사의 편지 쓰기〕





## 【꼭 알아 둬시다】

### ■ 한자의 쓰임

- '登'의 쓰임
  - 오르다: 登山(등산) 운동이나 놀이, 탐험 따위의 목적으로 산에 오름. 또는 그러한 일.
  - 들어가다: 登板(등판) 야구에서, 투수가 경기에 나와 마운드에 서는 일.
- '以'의 쓰임
  - 以 + 명사: 수단, 방법, 이유, 조건 등을 나타냄.  
以內(이내)일정한 한도의 안. 거리나 시간, 범위 등을 나타내는 말의 뒤에 쓰인다.  
交友以信(교우이신) 세속오계(世俗五戒)의 하나. 벗을 사귄데 믿음으로써 함을 이른다.

### ■ 추석의 유래와 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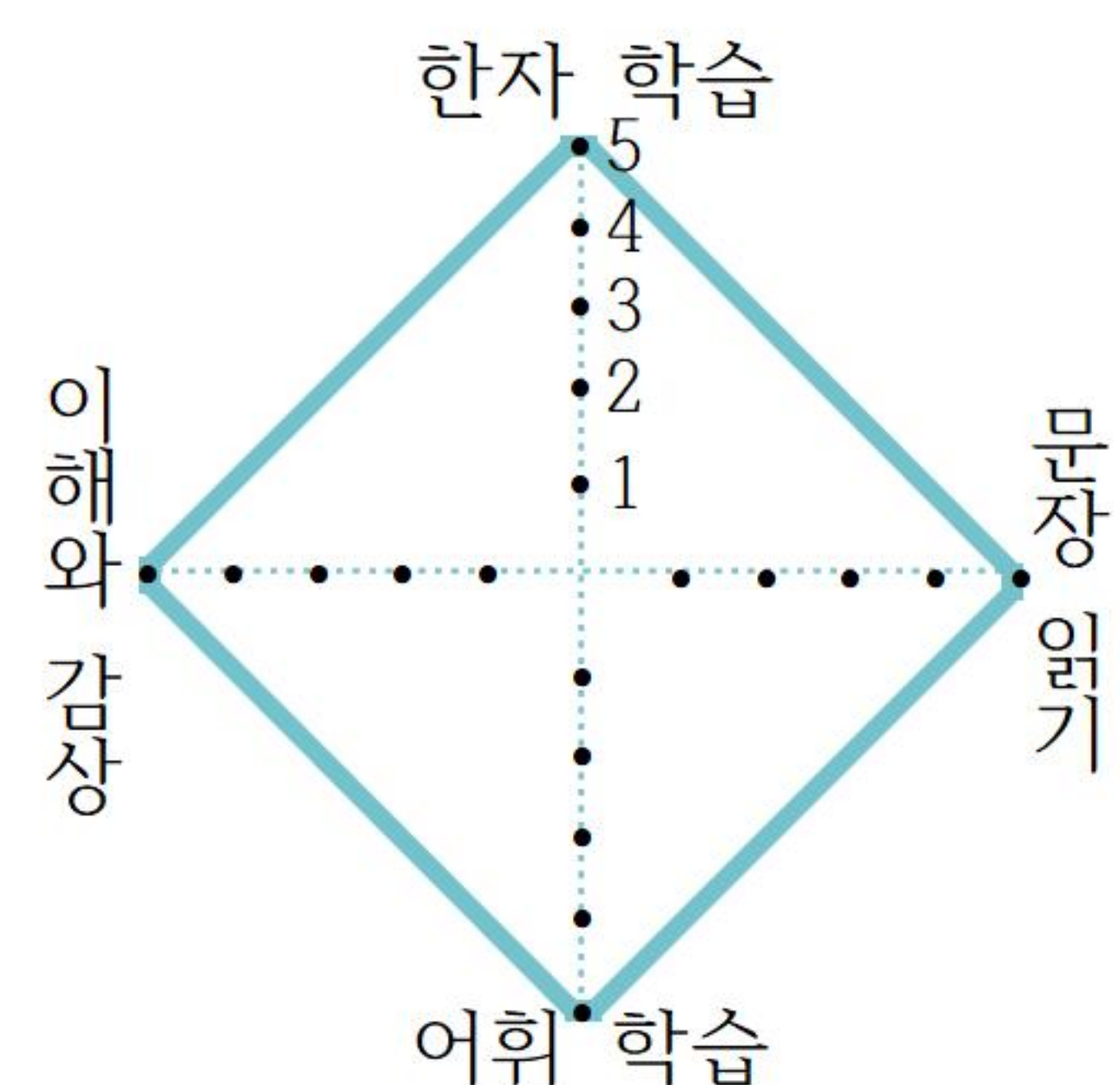
추석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한다. 중추절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3달로 나누어 8월이 그 가운데 들어서 붙인 이름이다. 한가위, 즉 가윗날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한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이 신라를 6부로 나뉘고 왕녀(王女) 2인이 각부를 통솔하여 무리를 만들고 7월16일부터 길쌈을 하여 8월15일 그 성과를 살펴 진편이 술과 음식을 내놓아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歌舞)와 놀이로 즐겼으며 이를 ‘가배(嘉俳)’라 하였다. 이때 진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 가배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8월15일이 우리의 대표적인 보름달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혹은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연중 가장 넉넉한 때라는 뜻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추석의 세시풍속으로는 벌초(伐草), 성묘(省墓), 차례(茶禮), 소놀이, 거북놀이, 강강술래, 원놀이, 가마싸움, 씨름, 반보기, 울게심니, 밭고랑 기기 등이 있다.

### ■ 세뱃돈의 유래

세뱃돈을 주는 풍습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 중국에서 붉은 색은 행운과 발전을 뜻하는 '홍빠오(紅包)'라는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돈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을 건네는 풍습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신년하례를 올리면 감귤 4개로 신하들을 대접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세뱃돈 보다는 꽃감, 대추, 떡 등으로 세배에 대한 성의 표시를 했다고 한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1. 대한민국 영토는

이름: ( )학년 ( )반 (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我 <sup>1</sup> 國 <sup>2</sup> 諸 <sup>3</sup> 山 <sup>4</sup> 은 아 국 제 산	我 나, 우리 國 나라 諸 모두 山 산
풀이	• 我: 나, <u>우리</u> ▶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문장	皆發源於白頭山하여 至智異而盡焉이라. 개 발 원 어 백 두 산 지 지 이 이 진 언	皆 모두 發 피다 源 근원 於 어조사 白 희다 頭 머리 山 산 至 이르다 智 지혜 異 다르다 而 말 잇다 盡 다하다 焉 어조사
풀이	• 發源: 흐르는 물줄기가 처음 생김. 또는 그런 것 • 於~: ~에서 • 而: ~하여 ▶	
문장	此島는 高麗得之於新羅하고, 차 도 고 려 득 지 어 신 라	此 이 島 섬 高 높다 麗 곱다 得 얻다 之 가다 於 어조사 新 새롭다 羅 새그물, 벌이다
풀이	• 此島: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지칭함.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512년에 신라에 복속된 우리나라 영토임. • 之: 그것 ▶	



문장	我朝得之於高麗하니, 元非日本之地라. 아 조 득 지 어 고 려 원 비 일 본 지 지	我 나 朝 아침, 조정 得 얻다 之 가다 於 어조사 高 높다 麗 곱다 元 으뜸 非 아니다 日 해 本 근본 之 가다 地 땅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朝: 조정, 조선을 가리킴</li><li>• 元: 원래</li></ul> <p>▶</p>	

문장	祖宗疆土는 不可與之라. 조 종 강 토 불 가 여 지	祖 할아버지 宗 마루 疆 지경 土 흙 不 아니다 可 옳다 與 주다 之 가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祖宗: 한 겨레의 가장 처음이 되는 조상</li><li>• 疆土: 국경 안에 있는 한 나라의 땅</li><li>• 不可~: ~할 수 없다</li><li>• 與: 더불어, <u>주다</u>, 참여하다</li></ul> <p>▶</p>	

※ 우리 국토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 백두산과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주장의 글을 써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投與 투여 • 與世推移 여세추이 • 參與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과 더불어 옮겨가거나 변해 가는 것을 같이함.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변화해 간다는 뜻.</li> <li>• 약 따위를 남에게 줌.</li> <li>•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계함.</li> </ul>
-----------------------------------	---

〔나〕

七面鳥 칠면조 • 九官鳥 구관조 • 韓半島 한반도 • 落島 낙도 • 吉兆 길조 • 亡兆 망조 • 非番 비번 • 非常 비상 • 宗婦 종부 • 宗家 종가 • 崇仰 숭앙 • 崇尚 숭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룩하게 우러러봄.</li> <li>• 높이 우러르며 소중하게 여김.</li> <li>• 닭목 칠면조과에 속한 새.</li> <li>• 찌르레깃과에 속한 새.</li> <li>• 실패하여 망할 조짐.</li> <li>•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li> <li>• 좋은 일이 있을 조짐.</li> <li>• 종가(宗家)의 맡여느리.</li> <li>• 평상시와 다르거나 일상적이지 않아 특별함.</li> <li>• 숙직이나 당직을 설 차례가 아님.</li> <li>• 한 문종에서 받아들로만 이어온 큰집.</li> <li>• 남한과 북한을 지리적인 특성으로 묶어 이르는 말.</li> </ul>
--	--

〔다〕

溪谷 계곡 • 巖石 암석 • 住宅 주택 • 廣腸 광장 • 文化 문화 • 市場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li> <li>• 산과 산 사이를 따라 기다랗게 움푹 패여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li> <li>•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li> <li>•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li> <li>•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일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마당.</li> <li>• 지각(地殼)을 구성하는 천연 광물로, 부피가 매우 큰 돌.</li> </ul>
--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을 찾아 써 보자.] -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 넣을 수도 있다.



## 【꼭 알아 둬시다】

### ■ 한자의 쓰임

- ‘於’의 쓰임(개사)
  - 장소·위치: ~에, ~에서, ~에게: 靑出於藍(청출어람)쪽에서 뽑아 낸 푸른 물감이 쪽 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비교: ~보다도 더욱 ~하다.: 霜葉紅於二月花(상엽홍어이월화) 서리 맞은 잎이 이월의 꽃보다 붉다.
- ‘之’의 쓰임
  - 어조사: ~의: 無人之境[(무인지경)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
  - 대명사: 그것: 易地思之(역지사지)남과 처지를 바꾸어(그것을)생각함.
- 주술목보구조: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하여 서술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다.
  - 孔子(주어)問(서술어)禮(목적어)於老子(보어) (공자문례어노자):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다.

### ■ 白頭大幹(백두대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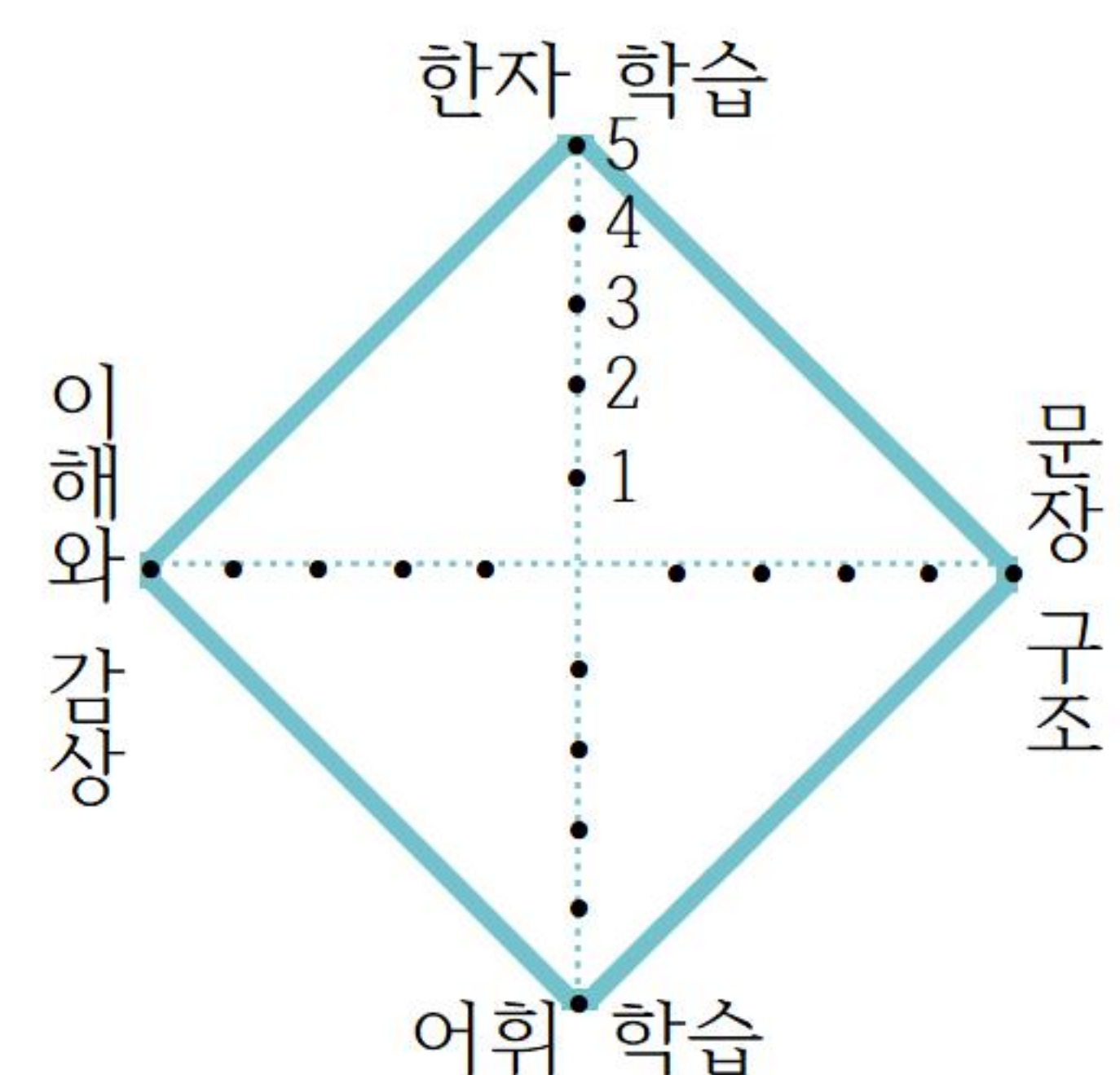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거쳐 태백산 부근에서 남서쪽으로 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국 산의 근골을 이루는 거대한 산맥이다. 즉 한반도 산계의 중심이며, 국토를 상징하는 산맥이다.

조선의 산맥 체계를 도표로 정리한 <山經表(산경표)>에 보면 한국의 산맥은 1개 대간, 1개 정간, 13개 정맥의 체계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산경개념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9년 3월 5일자로 개정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 독도는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2. 나랏말씀이

이름: ( )학년 ( )반 (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國 <sup>1</sup> 之 <sup>2</sup> 語 <sup>3</sup> 音 <sup>4</sup> 이 異 <sup>7</sup> 乎 <sup>6</sup> 中國 <sup>5</sup> 하여 국 지 어 음 이 호 중 국	國 나라 之 ~의 語 말씀 音 소리 異 다르다 乎 어조사 中 가운데 國 나라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之: ~의</li><li>• 語音: 말소리</li><li>• 乎: ~와(과)</li></ul> <p>▶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p>	
문장	與文字不相流通할새, 여 문 자 불 상 유 통	與 ~와 文 글월 字 글자 不 아니다 相 서로 相 흐르다 通 통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與~: ~와</li><li>• 流通: 통하다</li></ul> <p>▶</p>	
문장	故 <sup>로</sup> 愚民 <sup>이</sup> 有 <sup>유</sup> 所欲言 <sup>하</sup> 여도 고 우 민 유 소 욕 언	故 예, 까닭 愚 어리석다 民 백성 有 있다 所 바, 곳 欲 하고자 하다 言 말씀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欲: ~하고자 하다</li></ul> <p>▶</p>	
문장	而終不得伸其情者 <sup>가</sup> 多矣 <sup>라</sup> . 이 종 부 득 신 기 정 자 다 의	而 말 있다 終 마치다 不 아니다 得 얻다 伸 펴다 其 그 情 뜻 者 ~것 多 많다 矣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終: 마침내</li><li>• 不得(부득)~: ~할 수 없다 (불→부)</li><li>• 其: 그</li><li>• ~矣: ~이다</li></ul> <p>▶</p>	



문장	予爲此憫然 <sup>하여</sup> 新制 <sup>신 제</sup> 二十八字 <sup>이 십 팔 자</sup>	予 나 爲 위하다 此 이 憫 불쌍히 여기다 然 그러하다 新 새롭다 制 짓다 二 둘 十 열 八 여덟 字 글자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爲: 하다, 되다, <u>위하다</u></li> <li>憫然: 불쌍히 여기다</li> </ul>	

문장	欲使人人 <sup>으로</sup> 易習 <sup>하여</sup> 便於日用耳 <sup>니라.</sup>	欲 하고자 하다 使 부리다 人 사람 易 쉽다 習 익히다 便 편하다 於 어조사 日 해, 날 用 쓰다 耳 ~ 뿐이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使: ~로 하여금 ...하게 하다</li> <li>易: (역) 바꾸다 (<u>이</u>) 쉽다</li> <li>~耳: ~할 따름이다. ~할 뿐이다</li> </ul>	

※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한다.

※ 훈민정음에 담긴 정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容易 용이 • 易姓 역성 •	• 나라의 왕조가 바뀜. • 사용이 편리함.
--------------------	-----------------------------

〔나〕

清淑 청숙 • 清涼 청량 • 晴天 청천 • 晴虛 청허 • 旅情 여정 • 情感 정감 • 請婚 청혼 • 請求 청구 • 便乘 편승 • 便安 편안 • 不通 불통 • 不眠 불면 • 有罪 유죄 • 有錢 유전 •	• 돈이 있음. • 산천이나 계절의 기운이 맑고 깨끗함.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범죄 사실이 인정됨. • 맑고 서늘함. • 사람의 마음에 호소해 오는 듯한 느낌. • 구름 없이 맑게 갠 하늘. • 어떤 사람에게 결혼하기를 청함. • 회선(回線)이나 연락선(連絡船)이 끊겨 전기, 전신(電信), 서신(書信)이 통하지 않음. • 잠을 자지 못함. •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 • 여행할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시름 따위의 감정. •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나 물품을 요구함. • 어떤 세력이나 흐름에 덧붙여서 따라가 자신의 이익을 거둠. • 맑게 갠 하늘
--	--

〔다〕

훈민정음이 朝鮮 時代에 끼친 영향은 非但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莫大하다. (     )  
經典이나 漢文 文章의 讀解 乃至 理解를 가능하게 하였다. (     )  
훈민정음은 舌音, 鼻音과 같이 소리가 나오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만들었다. (     )  
세종대왕과 당대 학자들의 探究 力量을 엿볼 수 있다. (     )  
많은 학자들이 數次例 상소를 올려 훈민정음 창제를 적극 지지하였다. (     )  
愛民 精神이 깃든 훈민정음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偉大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     )

非但 비단 • 莫大 막대 • 經典 경전 • 讀解 독해 • 舌音 설음 • 鼻音 비음 • 探求 탐구 • 力量 역량 • 數次例 수차례 • 愛民 애민 • 偉大 위대 •	• 뛰어나고 훌륭함. •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스는 말. • 유학의 성현들이 지은 글이나 책. • 더할 수 없을 만큼 많거나 큼. •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 여러 차례. • 백성을 사랑함. • 진리나 학문 따위를 더듬고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 •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함. •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 【꼭 알아 둬시다】

### ■ 한자의 쓰임과 주술목보 구조의 문장

#### • ‘乎’의 쓰임

- 의문·반어 [...乎] ...는가. ...인가

學而時習之不亦說乎(학이시습지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 영탄: (~로)구나. ~도다. (‘哉’와 쓰임이 같음)

中庸之爲德也其至矣乎(중용지위덕야기지의호) 중용이 덕이 되는 것이 지극하구나.

- 전치사 ‘于’, ‘於’와 쓰임이 같음

莫大乎尊親(막대호존친) 아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 • ‘易’의 쓰임

- (이)쉽다: 難易度(난이도)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 (역)바꾸다: 交易(교역)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하며 서로 교환함.

#### • 주술보구조: 주어, 서술어,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 國之語音(주어) 異((서술어) 乎中國(보어):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

### ■ 훈민정음을 왜 만들게 되었을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하여 백성들은 글을 읽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세종대왕은 안타까워했는데, 1428(세종 10),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세종대왕은 엄벌에 처하기에 앞서 효에 대한 책을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책이 ‘상감행실도’이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하여 그림을 넣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다. 이에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알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림을 덧붙이고 ‘상감행실도’라 하고 (중략) 다만 백성들이 글자를 알지 못하여 비록 책을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여 착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며 고심하였다.

이후 세종은 백성들을 위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들고자 박팽년,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과 심혈을 기울였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은 세종 25년인 1443년에 달소리 17자, 홀소리 11자 모두 합해 28자의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후 3년간의 보충 연구 기간을 가졌고 창제된 지 3년이 지난 세종 28년(1446) 9월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